



농촌진흥청,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농가 현장 기술지원

-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, 19일 안성 배 농가 찾아
- 고온 등 이상기상에 따른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현장 살펴
- 저장 손실 줄이는 방법, 내년 피해 낮출 실천 기술 강조

농촌진흥청(청장 이승돈)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10월 19일 경기 안성의 배 ‘신고’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기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살피고,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‘신고’는 맛과 저장력이 우수해 추석용과 저장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배 품종이다. 올해 8~9월에는 고온과 급격한 수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수확기 열매 터짐 피해가 발생했다.

김 원장은 배 주산지 경기 안성 지역의 ‘신고’ 열매 터짐 발생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, 피해 저감 기술을 설명했다. 또한,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과 보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안성·천안 지역 배 열매 터짐은 7~8월 고온과 적산*온도 조기 증가, 수확 전 강우 등 이상기상 영향 탓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. 또한, 검은별무늬병(흑성병) 등 병해충 발생 증가도 피해를 키운 요인이라고 판단하고, 농가와 함께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

* 만개일 이후부터 수확일까지 일평균 기온의 누적값(기준 온도 0℃)

아울러 피해 열매를 선별한 뒤 저장해야 저장 중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. 이어 내년도 재배 과정에서는 7~9월 고온 경감 기술과 열매 터짐 경감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.

농촌진흥청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열매 터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기술과 수확기 안정 생산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김대현 원장은 “최근 배 재배 현장에서 이상 고온으로 열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가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.”라며, “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배 생산을 뒷받침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. 안성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(안)

담당 부서	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	책임자	센터장	전지혜 (061-330-1500)
		담당자	연구관	윤석규 (061-330-1561)
	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 농사로			

붙임**안성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농가 방문 계획**

□ 일 시: 2026. 10. 19.(월)

□ 장 소: 안성 배 농가(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534-3)

□ 주요내용: 수확기 배 ‘신고’ 열매 터짐 피해 발생 농가를 방문해 배
이상기상 대응·안정생산 기술 점검, 영농 현장 애로사항 청취

□ 세부일정

시 간	분	내 용	비 고
11:00 ~ 11:40	40	· 배 생육상황 현장점검, 애로사항 청취 * 공도읍 양기리 534-3 · 영농 현장 대응방안 협의	